

내가 받을 수 있는 콘텐츠 창업 정부지원금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새단장 지원분야·성장 단계 등 맞춤 확인 가능 정보 미리 확인하고 한 해 계획 수립

광주에서 콘텐츠·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창업을 할 때 얼마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 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홈페이지(gitct.or.kr)를 새단장하고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위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안내를 새로 개설했다. 이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지난 2002년 설립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콘텐츠와 ICT, 인공지능(AI) 분야 지역창업을 돕고 있다. 연간 300억원 규모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진흥원은 한 해 50개 넘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에는 창업지원 관련 공개모집 공고가 생길 때마다 일일이 지원자가 확인하고 응모해야 했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창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한 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의 지원을 받고 싶은 창업가는 지원분야와 성장 단계, 예산 규모, 공모 기간을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 1-3년 초기창업, 3-7년 도약기 성장지원, 3-7년 도약기 도약, 스타트업(IPO) 등 성장단계로 나뉜다.

도전할 수 있는 창업분야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디자인, 콘텐츠 기획·제작·ICT융합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영화·영상, 게임 개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5G 콘텐츠 제작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지원사업은 7개나 된다.

올해 5번째를 맞은 '인디스타즈'에 참여해 최대 8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투자유치 관련 기본교육과 멘토링을 받는 'ACBC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미래 영화감독을 꿈꾸는 광주시민이라면 장편 1편당 최대 2500만원(단편 최대 1000만원)을 7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는 '광주 장·단편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지원사업마다 내용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업기간, 기

간에 따른 지원절차, 사업담당자 전화번호가 표기돼 있다.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콘텐츠와 ICT,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지원예산이 어떤 지역보다 높은 도시가 광주"라며 "공간과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창업자들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내년에는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 예산과 내용을 연초부터 종합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펫코노미 창업을 이야기하다

광주창업포럼, 오늘

11월 광주창업포럼이 25일 오후 7시 '반려동물 1500만 시대, 펫코노미 창업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이지웅 교수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화 연계방안'에 대해 강연하고, 이어 코벨 정현석 대표의 '펫 라이프스타일 전성시대'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창업포럼은 광주시 동구 동구창업지원센터 4층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접수자 20명만 입장할 수 있는 대신, 유튜브 채널 '광주창업포럼'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은 광주전남본부, 연구논문 공모 연장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달 20일까지로 예정됐던 연구논문 공모를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주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광주전남지역 지역내총생산 예측'이다. 논문에 선정되면 연구 기간인 6개월 동안 2000만원 안팎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



돌봄 청소년에 쌀·김치 전달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최영·오른쪽 두번째)와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맨 오른쪽)는 24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1300만원 상당 사랑의 쌀·김치김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가 후원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벤치마킹 통한 생존창업 필요한 때

주춤해가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하루 수백 명 대로 접어들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힘든 상황 속에서 고전하며 버티던 소상공인들과 예비창업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도대체 코로나19의 끝은 언제쯤일까? 이런 상황이 초기 보다 더욱 두려운 이유는 감염경로의 모호성이 확대돼 추적검사가 쉽지 않아져서 빠른 확산속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돼 다시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비대면 영업환경이 조성됐지만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막대한 재원 마련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막연한 두려움에 한몫을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외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들의 개발소식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대대적인 접종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내년 말쯤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니 소상공인들과 예비창업자들도 이런 흐름을 영업전략과 창업전략에 반영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기존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간의 비대면 영업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운영전략이 재정비된 그룹도 있고 비대면 상황에서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는 업종을 창업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그룹도 있지만 대개의 소상공인들은 위기상황을 돌파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했으나 여전히 고전중인 상황에서 그저 이 힘든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되기를 기다리며 낮은 수익이나 적자상황을 참아내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예비창업자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의 지속과 재확산은 비대면형 창업아이템을 선택한 일부 예비창업자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려스럽고 두려운 악재임이 분명하다.

투자형 창업을 하는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시점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로 미루면 그만이었지만 문제는 생계형 창업을 해야 하는 다수의 예비창업자들은 이런 상황이 길어져 창업을 계속 미루게 되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계속 들어가기에 결국 줄어든 창업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미 그런 상황이어서 내키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창업에 나서는 예비창업자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창업은 생존창업 방식을 권하고 싶다. 커다란 성공을 위한 창업전략 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존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자신의 창업자금 규모를 감안해 매장의 규모나 예비 후보 창업아이템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정리한 이후에 자신이 입점하고 싶은 상권과 입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상권들을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업종들은 무엇인지,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단지 해당 사업장의 업주 개인만의 인맥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업종의 특성 때문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업종의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업주 개인의 역량만으로 성공한 점포에 대한 벤치마킹의 의미는 그리 크진 않다. 지금은 업종 중심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벤치마킹 시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창업한 점포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더욱 중요하다. 비대면 상황 하에서 창업해 비교적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들을 분석해 업종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하다보면 비대면 시대에서의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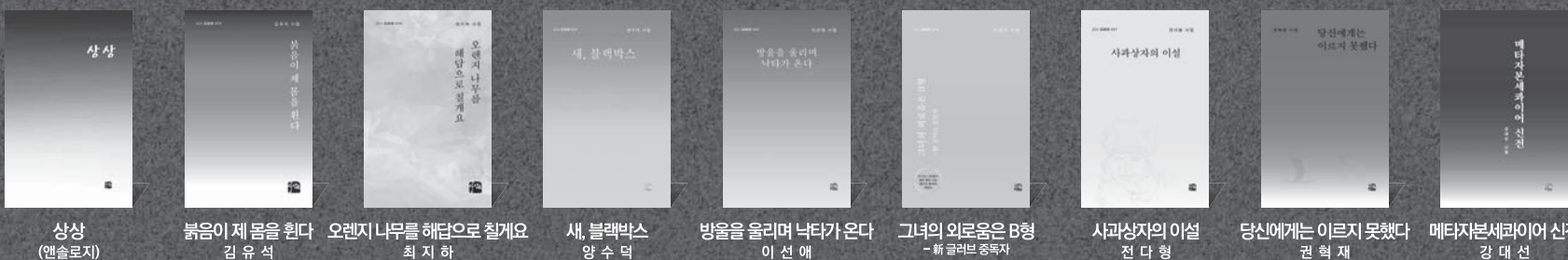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 7월 발간 김남수 시집 - 등근 것을 보면 아파다

* 8월 발간 장영주 시집